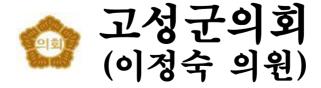
@ 민들라 살아주는 고생금의회

2025. 9. 12.(금) 10:00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

-문화와 예술로 빛나는 남포항의 야외공연 무대 설치 제안-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의 미래 해양관광 발전과 군민 여가·문화 예술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남포항 광장구역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무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포항 광장구역은 잔디광장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고성군 유스호스텔, 펜션 등의 시설과 더불어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해지개다리와 남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많은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포항은 고성군의 자원이자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남포항 광장구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집행부가 공간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부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읍에도 야외공연무대가 있긴 하지만

시장 내 소규모 공간에 그쳐,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문화행사와 축제 수요에 비해 안정적으로 개최할 넓고 쾌적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포항 광장구역에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한다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광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남포항 광장구역의 활용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 조성입니다. 음악회, 연극,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예술인과 청년 아티스트에게 창작 무대를 만들어 고성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축제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여름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음악 폐스티벌, 가을에는 농·수특산물 축제와 공연, 겨울에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를 열 수 있습니다.

계절별 콘텐츠 운영은 관광객 재방문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리와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야외공연무대는 조성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군은 지역 예술단체와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정기 공연을 편성하고, 음향·조명·이동식 좌석 등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근 상권과 연계한 '문화+관광+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포항은 이미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군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머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포항 야외공연무대 설치는 고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속에서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미래 고성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